

마포농수산물시장 內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

청년창업,일자리..전통시장과 푸드트럭의 相生

임희경 기자

승인 2017.08.08 13:35



마포구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안 사진 y 마포구시설관리공단

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맞은 편 마포농수산물시장 내에 중앙로446㎡ 면적에 10대의 푸드트럭이 들어설 예정이다.

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로부터 푸드트럭 시범거리 사업비 지원을 받아 지난달 24일부터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공사에 들어갔다.



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공사현장 사진 y 마포구시설관리공단

푸드트럭 거리는 스포츠와 문화, 음식이 융합된 공간으로 구성되며 공단 관계자는 " 월드컵 공원 근처로 월드컵경기장과 난지캠핑장 등 레저와 휴식공간이 많다"며 " 친환경 힐링,스포츠 문화거리를 조성하게 될 것"이라고 밝혔다.

다음달 16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푸드트럭 거리는 서울시와 마포구의 관심사인 청·장년 예비 창업가들에게 기회를 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주말 먹거리 장터 등이 연계해 서울 서북권역을 대표하는 푸드트럭 특화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.

임희경 기자 thanknews@naver.com

<저작권자 © 마포땡큐뉴스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인쇄하기